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제4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사랑의 초'에 불을 밝힙니다.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도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 갈수록 차가워지는 이 세상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계속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사고로, 건설현장 사고로, 건물 화재로 죽어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찢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좀 더 안전수칙을 잘 지켜나가 다시는 그런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겔 34:16 인도자
 ▲ 교 독 문 118. 구주강림(4)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장영숙 전도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 함께
 ▲ 성경봉독 고전 16:21-24 I. 인도자
 II. 이왕준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성탄의 밤, 탄생의 선포 하늘빛중창단
 II. 사랑이 예 오셨네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성우 박유경 김애순 김명하 오형일 김영호 김용진 박효선 김정미 김정훈
 이진영 김준호 곽혜자 김현동 오유경 김현주 민지희 박기원 이미영 박병구
 박상욱 임서영 박준민 최광희 박준희 이기분 변재민 이소혜 서정순 손이주
 신승진 임성옥 신현일 심상숙 안길상 이형숙 엄소현 우순덕 윤미경 윤수진
 윤순우 윤정덕 구성실 이근식 신영신 이미휘 이봉옥 이수자 이순용 김신실
 이순이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치림 강상연 임 영 정경례
 임형욱 장병준 박소현 장원호 박성희 장해정 조문규 진정숙 최윤선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성란 허호범 박성실 홍순구 안홍숙

감사헌금

김영호 김태정 김창숙 김향자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손숙경 유수진
 이상도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임선양 임은영 임종수 정경례 정구봉 정영례
 채일석 문금석(시모님34주기추모) 이치림(큰아들 논문 통과) 권혁래(수상)
 유성애(건강회복)

생일감사헌금

강상연 송양진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영희 박영림 우순덕 정연경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성탄 축하 행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무 한 다발

- 임창선

어설픈 신혼시절/ 남편은 화폐개혁으로
월급 삼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1000원 지폐 30장/ 꼭 써야할 돈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일기장에 고이 모셨습니다

한 장 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독하게 마음 먹고
무 한 다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깍두기 물김치 생채나물국/ 껍뚝껍뚝 무찌개
더러 무밥도 지어보고/ 구수한 무청 된장찌개

오랜만에 찾아온 친정아버지/ 나름대로 솜씨껏 상을 차렸건만

아버지는 꺄꺄 웃으며
“왕눈이가 처녀 땀/ 밥상이 온통 풀밭이라고 투정하더니
여긴 온통 무밭이로구나“ 하면서/ 소고기를 듬뿍 사왔습니다
소고기 무국 그 푸근함이라니……

가파른 일 년 후/ 귀한 선물 큰아들을 낳고
상큼한 새집으로 이사도 하고

무 한 다발/ 그 시절 우리에게겐 큰 디딤돌이었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광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사랑이 예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예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이 땅에 오셨네

말씀 마라나 타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브라스 밴드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사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며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사랑받기만을 원할 뿐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곁에 큰 사랑의 상징으로 와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촛불에 관한 사색

촛불이 있는 방은 아늑하다. 더러는 매혹적이고, 심지어는 성스럽기까지 하다. 촛불은 스위치만 켜면 화다닥 환하게 켜지는 전깃불과는 사뭇 다른 아우라를 거느리고 있다. 촛불이 경건한 종교 모임에 즐겨 이용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혼자 탄다. 혼자서 태어나 혼자서 자신의 몸을 연료로 하여 고독하게 빛을 낸다. 마치 복잡한 관계와 관계의 열개들로 뒤엉켜 살고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혼자서 자신의 생을 '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과도 같이.

가스통 바슐라르는 「촛불의 미학」이라는 아름다운 책속에서, 촛불의 생애적인 고독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불꽃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고, 또 혼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십팔 세기 말경 어떤 물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는 두 개의 촛불을 켜서 그 각각의 불꽃을 합치려고 시도했다. 촛불의 심지와 심지를 맞대어 보았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두 개의 고독한 불꽃은 각자 더욱 커지고 위로 상승하려고만 할 뿐, 서로 합쳐지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혼자서 제 몸을 태우는 저 촛불의 고독은 얼마나 빛나는 고독인가. 촛불에서 풍겨 나오는 거의 성스러움에 가까운 기품을 생각해 보라. 혼자됨의 고통을 묵묵히 이겨 낸 이의 깊숙한 내면에서 은은하게 스며 나오는 빛이 떠오르지 않는가.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한다. 고독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께서 군중을 피해 자주 혼자 따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고 전한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번잡한 일상을 뒤로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

기 위해서, 자신이 걸어야 할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그런 옹골찬 시간들이 축적됨에 따라, 우리의 삶도 저 촛불의 파랗고 노란 불꽃들을 닮아 눈물겹게 찬란한 형상으로 꽃피게 되지 않을까.

촛불은 혼자 탄다. 수직으로 상승하기 위해 혼자 탄다. 고고하게 탄다. 미세한 바람이나 입김에도 불꽃이 흐트러지긴 하지만, 그러나 촛불은 곧바로 다시 몸을 곧게 세운다. 수직을 향한 집요한 본능, 놀랄 만한 상승의 의지, 이 같은 촛불의 꿈은 촛불을 거룩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다.

바슐라르는 “불꽃은 그것이 하늘을 날기 때문에 한 마리 새인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촛불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면, 하늘로 비상하려는 촛불의 간절한 꿈이 보인다.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힘차고 자유로운 날개가 보인다.

촛불은, 그 순간, 응시자의 눈에, 저 해변가의 썩은 생선 찌꺼기에 연연하기를 포기하고, 창공을 향한 비상을 택한 갈매기 '조나단'과 동일시된다. 촛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투명한 영혼과 동일시된다.

수직으로 서 있는 모든 것은 살아 있음의 표징이다. 나무조차도 생명이 있는 동안은 수직으로 손을 뻗는다. 잠을 잘 때도 늘 서서 자는 나무는 목자가 되어서야 땅에 눕는다.

하늘을 꿈꾸는 사람은 성(聖)스럽다. 그가 꿈꾸는 하늘이 성(聖)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촛불을 응시한다. 촛불을 응시하는 이의 눈에서 촛불이 탄다. 이글거리며 탄다. 촛불을 응시하는 이의 눈에 한 마리의 새가 잡힌다. 푸드덕거리는 새가 잡힌다. ...